

광주시향

30대 마에스트로 시대 열리나

하노버오페라극장 수석 지휘자 출신
스타 음악가 구자범씨 영입 추진 중
단원들과 워크숍…근무 조건 등 조율



‘광주시립교향악단 30대 지휘자 시대 열리나’

1년 넘게 공식 상태인 9대 광주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로 맡은 스타 음악인 구자범(39·사진)씨가 물망에 오르면서 광주시향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 음악가에 새 바람

지난 1976년 창단 후 지금까지 광주시향을 거쳐간 지휘자는 모두 8명, 하니 헨ning 등 외국인 지휘자가 두명이었고, 30대 지휘자는 1989년 광주시향을 이끌었던 금노상씨가 유일하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의 경우 올해 38살의 중국인 지휘자 리 신자오를 영입, 적극적인 연주 활동을 계획하는 등 음악계에 젊은 바람이 불고 있다.

광주시로부터 ‘영입 케이스’로 러브콜을 받은 구씨는 지난 2월 광주를 방문, 3~4일 이를 동안 광주

문예회관 교향악단 연습실에서 단원들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중이다.

현재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구씨는 한국 방문 전 교향악단 층에 슈만의 ‘교향곡 4번’,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5번’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 베리의 ‘마탄의 사수’ 서곡 등 워크숍 때 연주할 8곡의 레퍼토리를 미리 전달했다.

구씨는 설흔 여섯살이었던 지난 2006년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독일의 정상급 오페라극장인 하노버립오페라 극장 수석 상임지휘자로 임명돼 화제를 모았던 스타 지휘자다.

이전까지 유럽의 정상급 오페라극장을 맡은 지휘자는 정명훈(파리 바스티유 오페라극장)씨가 유일했다.

연세대 철학과 출신으로 지난 1995년 독일 만하임 음대로 유학, 대학원을 수석 졸업한 구씨는 독일 하겐 시립오페라극장 상임지휘자와 다클슈타트 국립오페라극장 상임지휘자를 역임했다. 이후 푸치니

탄생 150주년 기념 국립오페라단 공연과 서울시립교향악단 객원 지휘를 맡는 등 국내 무대에도 얼굴을 비쳤다.

구씨는 단원들과 워크숍을 마친 후 4일 광주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근무 조건 등과 관련한 의견을 조율하고 수락 여부를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광주시향은 1년 넘게 상임 지휘자를 확정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 체계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다. 지난해 전국교향악축제에도 참가하지 못하는 등 제대로 된 활동을 펼치지 못했고 올해 역시 연주 스케줄도 잡지 못하는 등 활동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광주문화예회관은 지난 2008년 1년간 객원지휘 체제를 유지하며 지휘자 물색에 나섰지만 근무 여건 등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시립예술단체 신규 단원 모집

합창단 등 12명 18일까지 접수

광주시는 시립예술단체 신규 상임단원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합창단 2명(소프라노), 국악관현악단 2명(피리 1, 악기담당 1), 국극단 1명(판소리 남), 무용단 7명(남자 무용수 3, 여자 무용수 4) 등이다.

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이며 원서는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art.gjcity.net)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서류 심사와 실기, 면접 시험을 거쳐 최종선발하여 실기심사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에 걸쳐 모집분야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다음달 10일 광주문화예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문의 062.510-92621~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故 정채봉씨 마지막 동화집 재출간

‘하늘새 이야기’ 등 13편



2001년 3월 출간된 승주 출신 동화작가 고(故) 정채봉씨의 마지막 동화집이 재출간됐다.

백혈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를 보고 흰 구름에 검정 물이 들과 봐 걱정하는 아이의 이야기를 담은 ‘하늘새 이야기’ 등 13편의 동화가 수록됐다.

책 발간 두 달 전 세상을 떠난 작가는 서문에서 이 동화집을 ‘꿈과 사랑과 행복을 가득 담은 5월의 보리밭 같은 동화책’이라고 자평하며 “동화로 나의 생활을 하기 시작해서 동

화로 나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꼭 기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197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정씨는 간결함 속에 깊은 울림과 어운 주

는 문제로 ‘성인 동화’라는 새로운 문학 용어를 만들어 냈으며, 한국 동화 작가로는 처음으로 동화집 ‘물에서 나온 새’가 독일에서, ‘오세암’이 프랑스에서 번역 출간됐다.

/샘터·8천5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정월대보름 세시풍속 행사 풍성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한마당 축제

보성·여수 등 전남 곳곳서도 열려

정월대보름(9일)을 맞아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전통 행사와 세시풍속 행사가 열린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관장 서종환)은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광주 북구 용봉동 시립민속박물관 일대에서 ‘2009 정월대보름 한마당 축제’를 연다. 이번 행사는 3부로 나눠 진행되고, 먹거리 장터 등 상설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오전 10시30분 시작되는 제1부는 광산농악으로 축제의 막을 올리고 연날리기 등 민속놀이가 결들여진다. 또 오후 1시에 열리는 제2부는 민속놀이 경연대회, 닭잡기 놀이, 장기자랑, 가야금 병창·남도민요·북춤·한랑무 공연, 호두박 터뜨리기, 응풀 어를놀이 등이 펼쳐진다.

제3부에서는 2009년을 기념하기 위해 2천9인분의 한우 사골 떡국을 나눠 먹을 수 있고, 오후 7시부터는 우리문화 연구회 소리노리가 주관하는 달집태우기 행사가 열린다.

또 윷점보기, 널뛰기, 뻘메치기, 둘둑들기, 가훈써주기, 복조리 만들기 등의 상설 프로그램도 겹쳐진다. 모든 행사는 무료, 문의 062-521-9041.

8~9일 낭구 칠석동에서는 ‘제27회 칠석고싸움놀이축제’가 열린다.

전남지역에서도 흥겨운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가 마련된다. 보성군은 오는 5일까지 벌교에서 갯구신제를 연다. 갯구신제는 벌교읍 대포리에 400여년 전승되어온 풍어를 비는 행사이다.

대보름인 9일 여수 거북선공원에서는 여수시문화원 주관으로 ‘정월대보름 민속축제한마당’이, 함평 월야면 달맞이공원에서는 ‘세시풍속 재현 행사’가 열린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립민속박물관에서 지난해 열렸던 ‘2008 정월대보름 한마당 축제’ 떡매치기 모습.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제공〉

‘문화원형 디지털화’

문화부, 사업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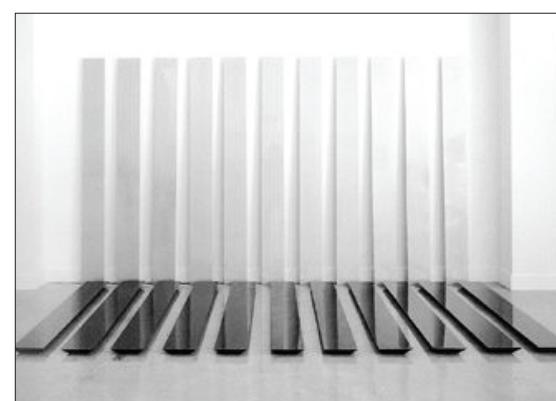
화가 이매리의 새로운 공간 해석

10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LIGHT’

공간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 주목 받고 있는 서양화가 이매리씨가 오는 10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LIGHT’에서 개인 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 이씨는 비어있음(Empitness)을 주제로 공간과 시간의 관계를 조망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영상은 합판이나 공간 위에 투사해



‘space-zero-II’

관객이 그 안에서 공간의 의미와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게 했다.

이씨는 독도대 미술학과와 조선대학원을 졸업했으며 ‘空·間·드러내기 응용하기’ 전 등의 전시회를 열었

다. 추상미술 그룹 ‘에っぽ끼’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 드라마 ‘대장금’처럼 전통문화를 소재로 기획·제작되는 콘텐츠 등을 지원하는 ‘2009 문화원형 디지털화 사업’을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송례문 디지털 복원’처럼 우리 고유의 문화원형을 디지털화하여 창작소재로 제공하는 ‘문화원형 창작소재 개발’ 분야와 전통문화를 소재로 제작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지원하는 ‘문화원형 글로벌콘텐츠화’ 사업으로 나눠 추진된다.

특히 올해 신설한 ‘문화원형 글로벌콘텐츠화’ 사업은 산업적 활용성이 큰 과제를 발굴,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원형을 소재로 활용해 2011년까지 제작을 마치고 시장에 출시할 영화·음반·게임·출판·방송영상·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공연 등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시립예술단체 신규 단원 모집

故 정채봉씨 마지막 동화집 재출간

‘하늘새 이야기’ 등 13편



2001년 3월 출간된 승주 출신 동화작가 고(故) 정채봉씨의 마지막 동화집이 재출간됐다.

백혈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를 보고 흰 구름에 검정 물이 들과 봐 걱정하는 아이의 이야기를 담은 ‘하늘새 이야기’ 등 13편의 동화가 수록됐다.

책 발간 두 달 전 세상을 떠난 작가는 서문에서 이 동화집을 ‘꿈과 사랑과 행복을 가득 담은 5월의 보리밭 같은 동화책’이라고 자평하며 “동화로 나의 생활을 하기 시작해서 동

화로 나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꼭 기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197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정씨는 간결함 속에 깊은 울림과 어운 주

는 문제로 ‘성인 동화’라는 새로운 문학 용어를 만들어 냈으며, 한국 동화 작가로는 처음으로 동화집 ‘물에서 나온 새’가 독일에서, ‘오세암’이 프랑스에서 번역 출간됐다.

/샘터·8천5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미가박스

구.현단역국사거리 ☎ 예매 1544-0600

■ 1관 적벽대전2 (15세) 최고급관

■ 2관 작전명 밤카리 (12세)

■ 3관 과속스캔들 (12세)/생화점 (16세)

■ 4관 작전명별기리 (12세)/유감스러운도시 (15세)

■ 5관 유감스러운 도시 (15세)

■ 6관 트랩 (16세)

■ 7관 적벽대전2-최후의결전 (15세)

■ 8관 알파독 (16세)

■ 9관 잉크하트-어둠의 부활 (전체)

■ 10관 유감스러운 도시 (15세)

총장로 5가 (전화번호) 228-2700

1관 유감스러운 도시 (15세)

2관 트랩 (16세)

3관 체인질링 (16세)

4관 알파독 (16세)

5관 작전명 밤카리 (12세)

6관 디파이언스 (15세)

7관 /베드타임스토리 (전체)

8관 쌍화점 (16세)

9관 작전명 밤카리 (12세)

10관 유감스러운 도시 (15세)

* 호남 최대 주차장 * 매일상영 * 금요일 퇴장

www.entercinema.co.kr

* 네고판권 특별 쿠폰 사용 가능 *

* 금요일 퇴장

</